

KTU REPORT

2010. 12. 14

KT노동조합 2010년 활동정리



KT노동조합 교육선전실

kttu.or.kr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 전화: 031-727-2850 ■ 팩스: 031-727-4815

2010년을 정리하며...

노동조합, 독창적 HOST운동과 노사공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0년 KT노동조합은 28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일대 변혁을 시도했다.

추모제, 지부대회, 전국대의원대회 등 10대 집행부 2년차 조합 일상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KT노동조합만의 독창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소박한 바람을 안고, 지난 3월 호스트운동을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신노사문화 공동선언도 하게 됐다.

새로운 노동운동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무료인터넷교육, 장학사업, 올레한마당잔치,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을 추진, 조합원과 국민을 향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KT노사는 지난 11월,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이라는 기대치 않은 큰 상을 받게 되었다.

김구현 위원장은 “대통령상 수상은 KT노사의 변화 움직임에 대한 격려이자 2만 5천 조합원들의 땀의 결실”이라며 모든 공을 현장조합원들에게 돌렸다. 또한 “KT 선진적 노사관계가 올 한 해에 집중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롤모델로 성장해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10월말 타결한 2010 단체교섭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도출해 냈다. 대내외적인 상황과 현장의 고충, 합리적 노사관계 등을 고려한 8대 요구를 난항 끝에 일괄상정 시켰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를 원칙으로 합리적인 조기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향후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복수노조적용을 앞둔 KT노동조합은 과도한 정치화를 지양하고 노조 전임자의 전문성과 역할을 정비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2011년에도 조합원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호스트운동을 기조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노동조합의 2010년 주요 활동을 정리한다.

목차

1. 2010 조합 일상활동	3
2. 호스트운동.....	14
3. 단체교섭	20
4.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22
5. 연대활동	23
6. 봉사활동	26
7. 소식지 발행.....	27

1. 2010 조합 일상활동

노동조합은 2010년 1월 11일(월) 아침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10년 첫 중앙상무집행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졌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매월 중앙상무집행위원 월례회의,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전국조직국장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위원회의를 가동, 노동조합의 의견이 하나로 견지될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김구현 위원장은 매달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썼으며, 이 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했다.

노동조합의 2010 주요 일상 활동들을 짚어본다.

□ 노동조합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열사 합동추모제



○ 날짜: 2010년 1월 6일(수)

○ 장소: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 내용: 전국지방본부 위원장들을 비롯한 조합간부들과 열사 유가족, KT그룹노조 집행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사들의 뜻을 추모했다. 행사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고 김낙성 동지, 고 김왕찬 동지, 고 오용철 동지, 고 김양중 동지, 고 윤준상 동지 등 5명의 열사에 대해 “이들의 헌신적인 삶과 투쟁이 있었기에 민주노조의 역사가 개척될 수 있었다”고 추모했다.

김낙은 유족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고인들의 빈 자리가 허전하고 그리운 것은 아직도 그 뜻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열사들의 정신을 잘 계승해줄 것을 당부했다.

□ 2010년 지부대회 개최

○ 날짜: 2010년 2월 10일(수)

○ 장소: 전국 각 지부

○ 내용: 노동조합은 2월 10일(수) 전국적으로 지부대회를 열고, 각 지부의 2009년 활동사항과 2010년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 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2010년 노동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지방본부대의원 선거를 진행했으며, 지방본부대의원 선출을 완료했다. 한편, 이날 사고지부에서는 오늘 지부대회를 통해 지부장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 총 28인의 지부장을 선출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업무진행

○ 날짜: 2010년 2월 1일(월) ~ 10일(수)

○ 장소: 노동조합 중앙본부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사고지부 대표자 보궐선거 및 지방본부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2월 1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소집돼 활동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임 대표위원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대표위원에 장화영 위원을 신임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 2010년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개최



○ 날짜: 2010년 2월 24일(수)~25일(목)

○ 장소: 전국 지방본부 별 개최

○ 내용: 올해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는 ▲2009년 활동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결산 ▲2010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을 진행하고,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권리수호를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규약 제24조에 따라 지방본부대의원 중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했다.

□ KT연구개발센터에 8번째 ‘꿈나무어린이집’ 개원



○ 내용: 10대 집행부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KT 꿈나무 어린이집’이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도 들어섰다.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인 꿈나무 어린이집이 수내, 광주, 부산, 목동 등에 이어 8번째로 개원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이날 개원한 우면동 연구개발센터를 포함해 수내지부, 분당지부, 고양지부, 목동정보통신센터지부, 혜화지부, 광주정보통신센터지부, 부산정보통신센터지부 등 총 8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 3·8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

○ 날짜: 2010년 3월 5일(금)~6일(토)

○ 장소: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 내용: KT노동조합의 올해 여성의 날 기념 행사에는 중앙본부 광급속 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 및 여성대의원, 여성지부장 등 여성간부 총 3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여성리더십과 법률교육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여성단체연합의 102주년 기념행사에 합류했다.

광급속 여성국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102주년을 맞은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여성 조합원들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고자 모였다.”고 인사하고 “KT가 여성 조합원들이 활짝 웃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희망의 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 2010년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날짜: 2010년 3월 30일(화)

○ 장소: 지리산수련관

○ 내용: KT노동조합 2010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3월 30일(화) 상정된 2개의 심의안건을 모두 의결처리하고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17시 30분 폐회했다.

전국대의원대회 본대회에는 김구현 위원장, 김해관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 및 대의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내외빈 등 총 50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최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1~9대 전직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KT계열사 위원장, 한나라당 18대 김성태 국회의원, KT 이석채 회장 및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현장과 함께하는 10대 집행부가 출범 2년 차를 맞아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해” 라고 강조하며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해 함께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조합원들의 실리를 하나라도 더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호스트운동과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사상생과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 며 “이 같은 활동계획을 결의하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동지들이 힘과 의지를 모아줄 것” 을 당부했다.

한편, 본대회 1부 행사에서는 15개 우수지부 및 17명의 우수조합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 KTTU 홈페이지 개편



○ 날짜: 2010년 4월 5일(월)

○ 내용: 노동조합은 4월초 ‘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모토로 개편한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새로운 KTTU 홈페이지는 ▲커뮤니티 강화 ▲통합검색 기능 ▲KTTU 블로그 서비스 ▲알뜰장터 운영 ▲여성전용 상담센터 등의 메뉴가 눈에 띈다. 특히 기존 지방본부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변경, 해당 지방본부 소식이 새롭게 포스팅 되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지방본부 소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성상담소는 여성조합원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직장 내에서의 진급문제, 성희롱 등의 무거운 고민은 물론, 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고충까지 질문영역에 구애 받지 않고 비밀리에 상담받을 수 있다. 여성상담소는 사생활 보장과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인노무사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영희 상담실장과 민대숙 사무국장이 답변을 맡고 있다.

□ 제7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

○ 날짜: 5월 6일(목)~7일(금)

○ 장소: 지리산수련관, 구례 섬진강변

○ 내용: 노동조합은 지리산수련관 인근 구례 섬진강변에서 ‘제7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500여 조합간부들의 흥겨운 열정으로 가득

찬 이번 축구대회에서 전북지방본부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500m계주에서는 강남지방본부가, 줄다리기는 부산지방본부가 각각 우승을 했다.

□ 이동정책실 운영



- 날짜: 2010년 6월 7일(월)
- 장소: 남부산·동부산NSC·부산법인단·창원·부산NSC·경남무선지부 등
- 내용: 노동조합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지방본부에서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남부산·동부산NSC·부산법인단·창원·부산NSC·경남무선지부 등을 돌며, 조합원 간담회 및 케이블 포설작업 등을 지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시험실 집중화, 출장비 고충, 단말기 보급지원 및 A/S관련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개최

- 날짜: 2010년 7월 26일(월)
- 장소: 중앙본부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은 7월 26일(월) 14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신분보장기금 청구건과 ▲재정자립위원회 구성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1호 안건인 신분보장기금 청구건>은 신분보장규정 제1조(목적), 제2조, 제20조에 의해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2호 안건 재정자립위원회 구성건>은 가결되었다.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 등으로 인해 올해 초부터 재정자립위원회 구성을 준비해왔고, 지난 7월 5일과 19일 회의를 통해 위원회 구성(안)과 목적 및 전체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재정자립위원회의 경우, 전임자임금지 급금지와 복수노조허용을 앞두고 작은 것부터 조합의 자주성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 고객회선 관리실 인력재배치 현장실태 조사 실시

○ 날짜: 2010년 7월 21일(수) ~ 23일(금)

○ 장소: 강북지방본부, 대구지방본부, 충남지방본부

○ 내용: 노동조합은 2010년 7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고객회선 관리실 인력재배치’ 관련 노사합동현장실태조사를 진행, 문제점들을 수정했다.

정책기획실 중앙상무집행위원들과 회사 관계자들은 데이터상 가장 문제가 많다고 거론된 강북지방본부, 대구지방본부, 충남지방본부를 순회하며 인력재배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따라 실사 전 ▲집중센터(571명) ▲유인실(742명) ▲ITE(330명)로 분류했던 1,643명의 인력을 ▲집중센터(572명) ▲유인실(771명) ▲ITE(300명)로 조정했다.

□ 2010년 제1차 중앙위원회의 열려

○ 날짜: 2010년 10월 18일(월)

○ 장소: 강북지방본부, 대구지방본부, 충남지방본부

○ 내용: 노동조합은 10월18일(월) 14시 중앙본부 5층 회의실에서 ‘2010년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분보장기금 청구 재심 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 중앙위원 40명 전원이 참석하여 지난 7월26일 부결된 '신분보장기금을 청구건에 대해 재심의 했으나, 「신분보장규정」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15조(중앙위원회의 재심 심의·의결)에 의해 <신분보장기금 청구 재심건>은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부결됐다.

■ 김구현 위원장 현장 순회



1) 노동조합 강원 폭설피해지역 순회

○ 날짜: 2010년 3월 10일(수)

○ 장소: 강원지방본부 속초·강릉·강릉NSC지부

○ 내용: 노동조합은 3월 10일(수) 폭설로 인한 업무장애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원지방본부 속초·강릉·강릉NSC지부를 순회하고 해당 조합원들을 위로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현장순회 후 강원지역 지부 간담회에 참석해 선로장애와 고객센터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조합원의 고충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한 뒤, “현장업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 서부지방본부 현장 순회

- 일정: 2010년 3월 16일(화)
- 장소: 서부지방본부 송도·연수지부
- 내용: 김구현 위원장은 3월10일 강원지역 현장방문 이후 계속해서 조합원과의 거리를 줄이고 이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3월 16일(화) 서부지방본부 소속 송도지부와 연수지부를 각각 방문했다. 또한, 2010년 KT노동조합 HOST운동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노동조합도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조합으로 만들자며 새로운 노동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3) 백령지부 위로방문

- 일정: 2010년 5월 26(수)~27일(목)
- 장소: 서부지방본부 백령지부
- 내용: 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은 5월 26일(수)~27일(목) 1박 2일간 윤오원 사무처장, 장인태 조직처장과 함께 노동조합 서부지방본부 백령지부를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문경노 서부지방본부 위원장과 심홍신 백령지부장으로부터 백령지부의 현안과 고충을 보고받고, “힘든 때 일수록 더욱 심기일전하여 조합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4) 대구지방본부 순회

- 일정: 2010년 6월 21일(월)
- 장소: 대구지방본부 북대구지부 및 대구NSC지부, 수성지부 등
- 내용: 김구현 위원장은 제3차 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 앞서 북대구지부 및 대구NSC지부, 수성지부 등을 순회하여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5) 태풍 수해지역 현장순회

- 일정: 2010년 9월 2일(목)~3일(금)
- 장소: 충남지방본부 등
- 내용: 노동조합은 9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수해지역 현장순회를 계획하고, 첫날인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가 휩쓸고 지나간 충남지역 피해현장을 찾아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구현 위원장은 장인태 조직처장 충남지방본부 조중오 위원장 등과 함께 대전마케팅단 금산지부, 충남마케팅단 당진지부 외 2개 지부 조합원들을 만나 독려하고 소정의 격려금과 함께 신속한 복구활동을 펼친 데 대해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6) 연평도 사태 피해지역 지원기관 격려 방문

- 날짜: 2010년 12월 2(목)
- 장소: 서부지방본부
- 내용: 김구현 위원장은 제5차 지방본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연평도 사태 피해지역 지원기관을 순회하고, 피해복구에 지원한 조합원들을 찾아 격려했다.

■ 2010년도 노동조합 신입사원 특강

1) 상반기 신입사원 대상 특강

- 날짜: 2010년 1월 25일(월)
- 장소: 원주 리더십아카데미
- 내용: 노동조합은 1월 25일(월) 2010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2010년 1월 신입사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구현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현황, 운영방식, 그리고 10대 집행부 핵심공약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신입사원교육은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신입사원 교육 시 2시간을 할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하반기 신입사원 대상 특강

- 날짜: 2010년 9월 13일(월)
- 장소: 원주 리더십아카데미
- 내용: 노동조합은 9월 13일(월) 원주 리더십아카데미에서 201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187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는 김구현 위원장, 차완규 정책기획실장, 허진 교육선전실장, 한호섭 복지국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현황, 그리고 10대 집행부 노동운동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지부를 찾아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1) 1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 날짜: 2010년 1월 27일(수)
- 장소: 제주지방본부
- 내용: 정기지부대회 공고 및 보궐선거 지침 건 등 확정

2) 제2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 날짜: 2010년 3월 8일(월)
- 장소: 강남지방본부
- 내용: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계획 논의, 호스트운동 프로그램 논의

3) 제3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 날짜: 2010년 6월 21일(월)~22일(화)
- 장소: 대구지방본부
- 내용: 노사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 등 현안 공유

4) 제4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 날짜: 2010년 9월 8(수)~9(목)
- 장소: 전북지방본부
- 내용: ▲수해복구 ▲전국대의원 관련 법원시정 명령에 관한 건 ▲희생자 구제 기금 재심 청구건 ▲희생자 구제기금 재심청구 관련 중앙위원회의 소집 건 ▲2010년도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등 집중 논의

5) 제5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열려

- 날짜: 2010년 12월 2(목)
- 장소: 서부지방본부
- 내용: ▲2010 단체교섭 및 노사문화대상 시상 관련 감사 인사 ▲고객회선관리 실 집중화에 따른 현장실사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희망의 쌀 나눔행사 ▲하반

기 봉사활동 ▲UNI 집행위원회의 ▲비정규직 생활보조금지원 ▲재정자립위원회의 등 주요행사 일정 및 현안사항 공유

하고 폐회했다. 또한, 조직기강 확립을 위한 제재 조치로 서부지방본부 인천법인사업단지부와 강남지방본부 수서지부의 조합간부(지부장)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결과와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김구현 위원장은 연평도 사태 피해지역 지원기관을 먼저 순회하고, 피해복구에 지원한 조합원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했다.

■ 노사정책협의회



1) 제1차 노사정책협의회

○ 날짜: 2010년 6월 15일(화) 오후 2시

○ 장소: 분당 본사 5층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15일(화) 분당 본사 회의실에서 노사정책협의회를 열고 네트워크운용체계 개선방안과 고객회선관리실 집중화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차완규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노사정책간담회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에 대해 보다 상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협의회 구성을 요구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노동조합은 그 동안 소문으로 무성하던 네트워크 인력이동 문제와 시험실 집중화 문제를 집중 성토했으며, 다음 회의까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 제2차 노사정책협의회

○ 날짜: 2010년 6월 23일(수) 오후 2시

○ 장소: 분당 본사 11층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과 회사는 6월 23일(수) 오후 2시 분당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제2차 노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1차 협의에서 거론됐던 네트워크운용체계 개선방안과

고객회선관리실 집중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지난 1차 회의에서 회사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수도권 및 경기, 강원지역 NSC지부를 순회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 이를 토대로 2차 협의회를 요구한 것이다.

노동조합 협의위원들은 “NSC 조합원들은 지난해 명퇴 이후 현장 업무부하가 많은 상황”이라며 “사측이 조직 프로세스 재배치 안을 만들기에 앞서 현재의 인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산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6월 24일(목)부터 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썼다.

3) 제3차 노사정책협의회

○ 날짜: 2010년 6월 28일(월) 오전 10시

○ 장소: 분당 본사 11층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은 6월 28일(월)에 분당 본사 회의실에서 회사와 제3차 노사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협의회에 이어 ‘네트워크운용체계 개선방안’과 ‘고객회선관리실 집중화’ 현안을 놓고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노사 양측의 간극은 좀처럼 메워지지 못했다.

홈 부문 고객회선관리실 집중화 현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무인실 보다 유인실에 대한 장점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집중실 또한 42개소보다 더 많은 집중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차기 협의 시 위 주장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키로 했다.

한편 네트 부문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미묘한 입장차를 고수함에 따라, 노사는 실무진을 구성하여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 2010년 7월 5일/ 제4차 노사정책협의회

○ 날짜: 2010년 7월 5일(월)

○ 장소: 본사 11층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5일(월) 제4차 노사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6월부터 정책협의회와 계속된 실무협의, 현장실사를 거쳐 논의한 인력재배치에 최종 협의했다.

그 동안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안을 축소했으며,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 회계감사 실시

1) 2009 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실시

○ 날짜: 2010년 3월 8일(월)~12일(금)

○ 장소: 노동조합 중앙본부

○ 내용: 노동조합은 3월 2009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김재희 회감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지난 회기에 권고사항으로 지적했던 증빙서류 미비 부문이 눈에 띄게 시정되어 있어 감사하다”고 전달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10대 집행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회감을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권고사항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철저하게 정비해 나가, 조합비 집행에 있어 한 치의 낭비나 착오가 없도록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2) 2010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 날짜: 2010년 8월 16일(월) ~ 20일(금)

○ 장소: 노동조합 중앙본부

○ 내용: KT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회(대표위원 김재희 외 6인)는 8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2010 회계연도 상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평 및 회계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희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계획적, 투명성 있게 집행이 이루어져 있었다”며 “특히 예산집행 실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 방문을 통한 조직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 호스트운동

KT노동조합의 2010년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호스트운동을 빼 놓을 수 없다.

2010년은 호스트운동이 태동한 해이자, 상생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선언한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이다.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은 이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맺은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조합 10대 집행부 출범 이후 지방본부를 통해 상급단체 탈퇴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의 과도한 정치투쟁과 내부정파싸움에서 벗어나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새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해 7월 상급단체 탈퇴를 선언했다.

상급단체 탈퇴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열망하는 조합원의 의지가 수렴된 결과로, 노동조합은 투쟁과 갈등,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를 뛰어 넘어 ‘상생과 연대’의 전략적 기치를 세우고,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노동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올해 1월까지 신노동운동 전략 수립을 위해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토론 및 워크숍을 수 차례 진행했다. 이어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토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HOST 운동]의 초안을 마련했다.

2010 KT노동조합의 호스트운동을 정리한다.

□ 창조적 신노사문화 공동 선언과 함께 [HOST 운동] 공식 선포



○ 날짜: 2010년 3월 5일(금)

○ 장소: 서초동 올레캠퍼스

○ 내용: 김구현 위원장은 3월 5일 서초동 올레캠퍼스에서 이석채 회장과 함께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10년을 KT 노동조합 ‘**HOST 운동**’ 원년으로 삼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 약속했다. HOST운동은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을 결합한 약어로 KT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정신 함축했다.

□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통해 HOST운동 세부논의

○ 날짜: 2010년 3월 8일(월)

○ 장소: 강남지방본부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은 2010년 제2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통해 ‘HOST 운동’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12개 지방본부위원장은 호스트운동이 조합원 내부만족을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과 노사화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노사 YOUTH장학사업 대상 접수 시작

○ 날짜: 2010년 3월 8일(월)

○ 장소: 노동조합 중앙본부

○ 내용: 노동조합은 호스트운동의 노사상생프로그램 일환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사 YOUTH장학사업을 시작했다. 노동조합은 3월 8일부터 19일까지 12개 지방본부를 통해 후보를 추천 받고, 26일까지 홍보실과 공동으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전 임직원 중고생자녀 대상 무료인터넷교육 접수 시작

○ 날짜: 2010년 3월 22일(월)

○ 장소: 노동조합 홈페이지

○ 내용: 호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은 물론 전 임직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고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다. 노동조합은 우수한 콘텐츠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조합원 가정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그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를 했음에도 시기를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한 임직원 자녀를 위해 11월 1일부터 신청을 재개 했다.

□ 무료인터넷교육 수강 개시

○ 날짜: 2010년 4월 5일(월)

○ 장소: 중학생: <http://7wisehome.kr>, 고등학생: <http://ktedui.com>

○ 내용: 조합원을 포함한 많은 임직원들이 중고생 자녀 무료인터넷교육을 신청했고, 중등교재를 발송한 후 4월 5일부터 수강이 시작되었다.

□ 노사 YOUTH 장학사업 대상 210명 선발 및 장학증서 전달

○ 날짜: 2010년 4월 6일(금)

○ 장소: 중앙본부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은 홍보실과 함께 소외계층 고교생 210명을 엄선해 졸업까지 학비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심사기준은 성적이 우수하며, 발전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 고등학생과 한부모·다문화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 정부 및 외부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이어 4월 6일 분당 본사에서 ‘KT노사 YOUTH 장학사업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졸업 때까지 수업료를 지원받게 될 210명의 고교생을 대표해 18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김구현 위원장과 이석채 회장 등이 함께했다.

□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 잔치 개최



- 날짜: 2010년 5월 20일(목)
- 장소: 대전 KT인재개발원
- 내용: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5월 20일(목)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KT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 잔치는 노동조합의 호스트운동과 노사상생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및 임직원 5,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방본부별 장기자랑, 족구, 배구, 행운권추첨, 시상, KBS열린음악회 녹화 순으로 구성했다.

□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기념 오찬 개최**

- 날짜: 2010년 7월 21일(수)
- 장소: 분당 본사 21층 회의실
- 내용: 노동조합은 7월 21일(수) 오전 11시 30분 분당 본사 21층 회의실에서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 기념 오찬’ 행사를 개최했다. 소년소녀가장지킴이 후원 활동은 노동조합의 호스트운동 중 하나로, 총 52명의 우수한 소년소녀가장을 추천 받아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 **KT H2O 청소년 IT 여름캠프’ 개최**



- 날짜: 2010년 8월 12일(목)~13일(금)
- 장소: 대전 KT인재개발원
- 내용: 노동조합은 지난 8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1박2일 동안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KT H2O 청소년 IT 여름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호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연 이번 행사에는 KT노사가 후원하는 전국의 장학생들과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장 100여 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번 여름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첫날 대전 NSC를 방문해 시외전송시설, 인터넷 및 시내전송 시설, 국제교환시설, 114 안내센터 등 KT의 주요 통신시설을 견학했으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저녁에는 은은한 불빛의 풍등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소원을 빌기도 했다.

□ H2O 녹색지킴이 활동

○ 날짜: 2010년 8월 27일(금)

○ 장소: 전국 460개 장소

○ 내용: 노동조합은 8월 27일(금) 아침, 호스트운동과 노사상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H2O(HOST to Olleh) 녹색지킴이 운동'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 있는 460개 장소에서 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동시에 진행했으며, 조합원 및 임직원 총 2만 1천여 명이 참여해 주변의 하천과 도로변, 문화재시설, 버스정류장, 계곡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노사는 앞으로 녹색지킴이 활동을 환경정화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재보호 캠페인이나 지역주민 대상 문화공연 등으로 발전시켜 연 2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MOU 체결

□ 분당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MOU 체결



○ 날짜: 2010년 8월 17일(화)

○ 장소: 분당 본사

○ 내용: 노동조합은 8월 17일(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위원장 이경재)과 양측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노동조합이지만 작은 것부터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나누고 조합원과 이웃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노동운동의 큰 틀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방안과 함께 양 노동조합의 복지향상 및 공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KT 조합원의 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지난해(2009.10.23) 수자원공사노동조합과 노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적·정보 교류를 위한 MOU 체결을 한 바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과 MOU 체결

○ 날짜: 2010년 10월 18일(월)

○ 장소: 분당 본사

○ 내용: 노동조합은 10월 18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정종화)과 양측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간부와 회사 임원들이 참석하여 조합원의 복지향상은 물론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등,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만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노동조합은 더욱 견고한 신뢰와 단결로 동반자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정보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과 MOU 체결



○ 날짜: 2010년 11월 2일(화)

○ 장소: 분당 본사

○ 내용: 노동조합은 11월 2일(화) 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위원장 강용규)과 양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노동환경의 변화로 융합과 교류는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 됐다”고 말한 뒤 “오늘의 작은 만남이 훗날 큰 열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용규 위원장 역시 “조합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방안과 함께 양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KT노동조합은 아이폰 공급계약을 완료하고 공항공사의 전직원에게 아이폰을 순차 공급하게 됐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의 모바일 오피스 연계시스템과 FMC 시스템을 지원하는 등 상호간 실질적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 2010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10월 28일(월) 2010 단체교섭 가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를 실시, 88.3% 찬성으로 같은 날 저녁 9시 44일만에 협정서에 정식으로 조인했다. 협정서는 ▲인사평가그룹 통합 ▲기준연봉체계 개선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중간정산 시행 ▲상조서비스 지원 ▲주택자금 등 대부이자율 인하▲선택적 복지포인트 증액 ▲ 전 직원 아이패드 지급 등을 담았다.

2010 단체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으나, KT발전과 통합이 후 복지균형이라는 대승적 기조 아래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노동조합은 2010 단체교섭 중점을 조합의 역할과 향후 방향 및 조합원의 임금수준유지, 복지증진에 맞췄다. 아울러 회사의 성장미래를 일정부분 담보함으로써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2010년부터 고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 실적급여 대비 올해 급여 인상률이 평균 5.94% 증가했다. 2009 합의에 따른 2010 임금인상내역을 살펴보면, 제도개선 인상률은 평균 3.3%, 인사평가 인상률은 2.7%에 달한다.

이에 2010년 단체교섭은 당장의 임금인상 보다는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이 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합의했다. 특히 보수제도 변경에 따라 내년도 임금 손실을 우려할 수 있으나 2011년 임금조정계수(α)를 1.01이상으로 하여 현

임금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2011년 단체교섭을 통해 α 값이 결정되면 **교과 + 성과급**이 확정됨에 따라 평균임금이 최종 결정된다.

또한 성과급 차등폭 확대는 일정 부분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다는 확신에서 노동조합이 어렵게 결단한 사항이며, 급식통근비 실적급화로 퇴직금이 1인 평균 250만원 정도 삭감되었으나 복지포인트 100만원을 매년 추가 지급해 손해 부분을 보전키로 했다.

□ 본회의

- 9월 15일: 교섭위원 상견례 및 노동조합 8대 요구안 설명
- 9월 29일: 난항 끝, 8대 요구안 일괄 상정
- 10월 8일: 회사, “8대 요구 수용불가, 인사보수제도 개악” 주장
- 10월 11일: 임금분야부터 충돌, 복지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사 논의키로
- 10월 14일: 사측 미진한 태도에 노동조합 “결단시기 임박” 압박
- 10월 19일: 사측 개악안 반박에 노동조합 “더 이상 교섭 의미 없다” 선언
- 10월 21일: ~ 비공식 교섭 진행
- 10월 25일: 2010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 10월 28일: 조합원총회 및 협정식 개최(88.3% 찬성)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 10월 13일: 8대 요구 중 복지부문 설명, 2011년 12월까지 KT통합 후 복지수준 통일키로
- 10월 15일: 노동조합 복지 2대 요구 주장, 회사, “검토하겠다” 되풀이
- 10월 18일: 회사 “기금 400억 출연, 상조비 지원, 대부이자율 인하 및 기준완화만 적극 검토”, 노동조합 “본회의서 협상 이어가겠다” 폐회 선언

4.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상식 개최

○ 날짜: 2010년 11월 27일(월)

○ 장소: 분당 본사 17층

○ 내용: 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29일(월) 본사 17층에서 ‘2010 신노사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수여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용노동부 김순림 성남지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KT노사가 함께한 2010년 활동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뒤, 곧바로 시상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 24일(수) 고용노동부 주관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상 수상은 노사간 노력도 없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2만5천 조합원들의 공”이라고 밝히고, “KT노사문화가 모범적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활동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3일(월) 2010년 노사문화대상 기업으로 KT와 행남자기 등 1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심사에서는 KT노동조합의 호스트운동과 KT노사상생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H20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문화대상은 정부가 노사상생협력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매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사업장 중에서 현지실사와 경진대회를 거쳐 탁월한 기업을 선정, 포상을 수여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대상수상 기업은 향후 3년간 정부포상과 함께 정기근로감독 면제, 정부 물품조달 적격심사시 우대,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시 가산점, 보증한도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5. 연대활동



1) UNI-KLC 집행위 회의

- 날짜: 2010년 3월 24일(수) 오전 11시
- 장소: 노동조합 중앙본부
- 참석: UNI 최정식 사무총장, 김영삼 회계감사, 정보통신노련 이종석 상임부위원장, 사무금융노련 이두현 부위원장, 언론노조 이영순 조직쟁의실 부국장, 민간서비스노조 정민정 여성국장, KT노동조합 차완규 정책기획실장 등
- 내용: UNI-KLC 집행위원회 회의가 3월 24일(수) 오전 11시 KT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노조의 현황보고 후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을 UNI-KLC 신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2) 제8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 참가

- 주제: 비정규직
 - 일정: 2010년 4월 26일(월)~29일(목)
 - 장소: 대만 화련
 - 참석: KT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 및 조합간부, 일본 NTT노동조합 가토 위원장 및 조합간부,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주전병 위원장과 조합간부 및 UNI-Apro사무국장 등
 - 내용: 제8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이 ‘비정규직’을 주제로 4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대만 화련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KT노동조합을 비롯해 일본 NTT노동조합,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간부 및 UNI-Apro사무국장 등이 참가했으며, 조합간부들은 각국의 사례와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포럼에 참가한 김구현 위원장은 “KT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비취지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동아시아 노동자 모두의 미래 고용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각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아 성명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연설했다.

3) 'UNI 텔레콤 월드 회의' 참가

- 날짜: 2010년 5월 10일(월) ~ 12일(수)
- 장소: 스위스 니옹
- 참가: 한국·미국·영국·일본·대만·프랑스 등 24개국 통신노동조합
- 내용: 노동조합 국제연대는 지난 1년간 초국적 통신자본에 맞서 펼친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운동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4)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사랑과 나눔' 행사 개최



- 날짜: 2010년 6월 3일(목), 2010년 9월 16일(목)
- 장소: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 내용: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6월 3일(목)과 9월 16일(목)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 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 행사에는 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 각 단사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그룹노동조합협의회집행위원장, 집행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4백여 명의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생활필수품(속옷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그룹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김구현 위원장은 “밥퍼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조금이나마 희망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노동운동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 며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5) 김구현위원장 KT 텔레캅노동조합 방문

- 날짜: 2010년 8월 24일(화)
- 장소: KT 텔레캅노동조합
- 내용: 김구현 위원장은 지난 8월 24일(화) KT 그룹노동조합협의회 회원 단사인 KT 텔레캅노동조합(박정수 위원장)을 격려차 방문하여 2010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했다.

김 위원장은 치열한 통신시장 경쟁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룹경영체제 확립이 중요하며 계열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룹 전체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기술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그룹노조협의회, KT금호렌터카노동조합 한가족으로 맞아

- 날짜: 2010년 9월 30일(수)
- 장소: 중앙본부 회의실
- 내용: KT그룹노조협의회(이하, 그룹노조협의회)는 9월 30일(수) 오후 5시 KT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룹노조협의회 집행위원들은 ▲그룹노동조합 출신 대외활동가 지원대책 ▲헌 옷 모으기 행사 ▲11월 UNI세계대회 참가 ▲조직확대사업 등 협의회 발전방향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KT금호렌터카노동조합의 그룹노조협의회 가입이 결정됐다.

7) UNI-KLC ‘한국과 북유럽 보육정책 비교 토론회’ 참가해 KT사례발표

- 날짜: 2010년 11월 30일(화)
- 장소: 한국노총 국제세미나실
- 내용: KT노동조합은 지난 11월 30일(화) 한국노총 국제세미나실에서 열린 UNI-KLC(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 한국지역협의회) 여성위원회 주최 ‘한국과 북유럽 국가의 보육정책 비교 토론회’에 참가해, KT 여성친화제도와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KT사례발표를 위해 발제자로 나선 노동조합 객갑숙 여성국장은 “KT는 출산 후 복직율이 99%에 달하고 여사원 평균근무 연수가 17.6년으로 100대 기업 중 2위를 차지하나, 노동조합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승진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공감대와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보육교사 1인당 평균 아동 6인꼴로 운영하는 8개의 보육시설 ▲불임휴직 ▲육아휴직 ▲유아교육보조비 ▲스마트워킹 ▲리프레쉬 휴직제도 등을 꼽았으며, 노동조합 단독으로 ▲여성전문상담소 등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의 만족도”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12개 지방본부 여성국장과 441개 지부 여성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성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8) 그룹노조협의회, 사랑의 쌀 기증 행사 개최

- 날짜: 2010년 12월 8일(수)
- 장소: 구로 인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내용: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구현 KT노동조합 위원장)는 12월8일

구로 인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방문해 고향을 떠나 외로움과 설움에 고통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 다문화가정을 위해 쌀 2,000kg을 기증했다.

이날 김구현 의장은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보탬 수 있어 기쁘다”며 “120만 다문화가족시대를 맞이하여 'KT그룹노동조합 사랑나눔 봉사' 활동이 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월23일에도 KT그룹노동조합은 방한 의류 등 5천여 점의 헌 옷들을 모아 노숙인들의 쉼터인 "따스한 채움터"에 전달한 바 있다.

6. 봉사활동



□ 노동조합, 장애우 시설 ‘녹향원’ 찾아 이웃사랑 실천

○ 날짜: 2010년 7월 15일(목)

○ 장소: 청계산 인근 녹향원

○ 내용: KT노동조합은 지난 7월15일(목)에 경기도 의왕시 청계산 인근의 장애우 시설인 녹향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30도 넘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 날 활동은 감자 캐기와 고추밭 일구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녹향원은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노동조합은 매년 장애우 목욕시키기, 잡초 제거하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 사랑의 연탄 나르기

○ 날짜: 2010년 12월 9일(목)

○ 장소: 성남시 근교

○ 내용: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 전원은 12월 9일 겨울나기가 어려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8천여장(=5백만원 상당)을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KT 직영업체 및 협력사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에게도 분기별 50만원씩, 연간 200만원의 생활보조금도 개별 지원할 계획이다

7. 소식지 발행

□ 일일 소식지 및 노보 발행

○ 소식지: 10-104호 ~ 10-183호: 총 80회

○ 노보: 10-12호 ~ 10-15호: 총 4회



□ 노동조합 책자형 소식지 ‘뽀뽀’ 창간

<책자형 소식지 뽀뽀 발행>



○ 목적: 노동조합은 그 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전달에 그쳤던 기존 노보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 왔다. 수 차례 논의 끝에 노보를 격월간 책자형으로 제작해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의 마중물이 되고자 했으며, 지난 6월 창간호를 선보였다.

○ 뽀뽀 1호 창간: 2010년 6월 14일(월)

○ 뽀뽀 2호 발간: 2010년 8월 10일(화)

○ 뽀뽀 3호 발간: 2010년 10월 6일(수)

○ 뽀뽀 4호 발간: 2010년 12월 10일(금)

/KT노동조합